



사무총장	박원수	배포일	2023.06.01	전화	1644-1525
이사장	정윤하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 11길33, 경원빌딩 4층		

임지순 석학교수의 호암상 수상, 교수 정년 제도 폐지 요청

한국노벨과학포럼 회원 일동은 임지순 교수의 '2023년 호암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농경시대의 사회적 폐단에 불과한 '교수 정년제'를 국가석학에 한해 폐지해줄 것을 간곡히 주장한다.

한국 과학계의 대표적 석학인 임지순 교수는 고체 물질 형성에 필요한 총 에너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하여, 실험을 거치지 않고도 고체의 구조와 성질을 밝혀내는 '계산재료물리학' 분야를 개척한 인물이다. 하지만 한창 연구 성과를 쏟아낼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곧 정년을 맞아 연구를 더 진척하지 못할 상황을 맞고 있다.

임지순 교수의 계산법은 슈퍼컴퓨터에 접목되어 새로운 물질의 설계와 합성 과정의 필수 요소가 되었고, 이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및 이산화탄소 제거용 나노 신소재 개발에 크게 이바지한 사실은 전 세계 학계가 인정하고 있다.

임 교수의 연구 성과는 '2004년 인촌상', '2007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2007년 포스코 청암상'을 받는 등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여주었다. 임 교수는 2011년에는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로 미국 국립과학원(NAS) 회원으로 선출되었고, 미국 물리학회 석학회원, 미국 전기전자공학회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올해 72세로 학자로서 꽃다운 나이인 임 교수는 평생의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결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농경시대의 육체노동을 기준으로 교수정년을 정해놓고 국가석학의 연구를 멈추게 만들고 있어 모두를 애석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의 평균 나이가 약 70세라는 점에서 더욱 애석한 일이다.

임 교수는 인류 사상 최대의 상금이 걸린 'X-PRIZE'에 2건의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본선에 진출시켜 인류의 최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올해 8월부터는 정년의 벽에 막혀 이 연구를 멈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벨과학포럼 전 회원은 국가 석학에 한해 '교수 정년제'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2023.06.01.

한국노벨과학포럼 회원 일동